

지역 소식통

고창군, '여행가는 달' 기획 여행상품 출시

전북 고창군이 전라북도·한국관광공사와 함께 2022 여행가는 달' 기획 여행상품으로 운곡습지 생태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2022 여행가는 달'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지역특화 관광콘텐츠를 발굴하고 양질의 여행프로그램 제공을 통한 국민관광복지 향상을 위해 추진하고 있다.

군은 '운곡탐사르습지 친환경 생태 여행'을 주제로 운곡습지의 청정함을 만끽하며 걷는 노르딕워킹, 초여름 밤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반딧불이 프로그램을 저렴한 가격으로 관내 여행사를 통해 제공한다.

여행상품은 오는 7월5일까지 놀패스 홈페이지를 통해 개별로 구매 가능하며, 20인 이상 단체에는 운곡습지 유스호스텔 숙박권이 포함된 상품도 판매한다. /고창=김영진 기자

부안군, 착한가격업소 신규 모집

전북 부안군은 오는 6월 10일까지 착한가격업소를 신규 모집한다.

착한가격업소는 저렴한 가격과 적절한 위생 상태, 우수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인 서비스 업소 가운데 행정안전부의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할 물가 안정 모범업소를 말한다.

신청대상은 부안군 소재지의 의식업 이·미용업 세탁업 등 개인서비스 업종이며 행정처분을 받은 적이 있거나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는 업소, 프랜차이즈 업소 등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착한가격업소 지정은 희망하는 영업주는 군 홈페이지 참고하여 제출서류를 군 미래전략담당관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신규 착한가격업소에게 인증현관 전기안전 점검 등 다양한 혜택을 지원하며, 착한가격업소 이지에 홍보되는 기회도 주어진다. 또한 기존 착한가격업소도 재검별 예정이다. /부안=김석진 기자

테마가 있는 자연마을 조성

부안군, 유학이야기가 흐르는 석동 자연마을 완성

부안군이 테마가 있는 자연마을 정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추진한 석동 테마가 있는 자연마을 사업이 준공되었다.



석동산 등산코스가 하나 더 만들어졌고, 총 4코스의 등산로를 따라 걸다 보면 곳곳에 퍼즐러그네 쉼터와 정자, 오륜 글씨가 새겨진 돌의자 쉼터, 유학이야기 테마의 조형물을 만나게 된다. 특히 절개가 머무는 곳이라는 뜻의 유절암 앞에 포토존이 설치되어 아름다운 자연을 사진에 담아가는 관광객이 더욱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테마가 있는 자연마을 사업은 농촌 마을이 보유한 고유한 자연환경과 문화 역사자원을 유지하며 이를 활용해 농촌관광자원을 개발하고 마을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3억원으로 조성되었다.

부안읍 연곡리 석동마을은 전라유학진흥원 예정지와 도동서원터, 9개의 재실이 있어 역사자원이 풍부한 마을로 유학이야기가 흐르는 테마마을로 재탄생되었다. 풍경이 있는 유생쉼터, 유학이야기길, 최광지 금의환향쉼터 조성과 마을 역사자원 및 재실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 도동서원터와 함께 유생들이 산책하고 자연과 함께 수학하

던 쉼터로 조성되었다. 석동산 등산코스가 하나 더 만들어졌고, 총 4코스의 등산로를 따라 걸다 보면 곳곳에 퍼즐러그네 쉼터와 정자, 오륜 글씨가 새겨진 돌의자 쉼터, 유학이야기 테마의 조형물을 만나게 된다. 특히 절개가 머무는 곳이라는 뜻의 유절암 앞에 포토존이 설치되어 아름다운 자연을 사진에 담아가는 관광객이 더욱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최광지 금의환향쉼터에는 2020년에 보물 제2082호로 지정된 '최광지 홍

패'를 널리 알리고자 설치한 보물 전시함이 있다. '최광지 홍패(崔匡之 紅牌)'는 고려 말 ~ 조선 초에 활동한 문신 최광지(崔匡之)가 1389년(창왕 2) 문과 병과 3인(丙科 第三人)으로 급제하여 받은 문서로, 발급연월일 위에 '고려국왕지인(高麗國王之印)'의 국새가 찍혀 있다. 임금이 명령을 직접 실천한 공식문서로서 완결된 형식을 갖추고 있어 조선시대 공문서 제도에 큰 영향을 끼쳤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석동마을에는 또 김작손 신도비와 김억일 순효비이다. 김작손 신도비(金直孫 神道碑)는 율곡 이이가 지은 글로 신도비의 내용에는 "공은 용모가 단정하고 의젓하였으며 결코 화려하게 꾸미지 않고 몸을 맑고 결백하게 가져서 조금치도 명령 따르지 않았다. 고을 이속들은 공을 두려워하고 백성들은 공을 존경하였다..."라고 새겨져 있다. /부안=김석진 기자



정읍시가 시민 복지와 행정 서비스를 향상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을 발굴하기 위해 추진한 정읍발전 정책 제안 공모의 수상작을 선정했다.

'회전교차로 진입 유도선 도색'

정읍시, 생활 밀착형 정읍발전 정책공모 '우수 제안' 선정

정읍시가 시민 복지와 행정 서비스를 향상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을 발굴하기 위해 추진한 정읍발전 정책 제안 공모의 수상작을 선정했다.

시는 2월 24~3월 25일까지 정읍시민과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창의적이고 실행 가능한 정책 제안을 공모했다.

공모에는 주민 실생활 편의 향상을 겨냥한 주민밀착형 정책과 인구 유입 정책 등 총 144건의 다채로운 제안이 접수됐다.

시는 창의성과 실현 가능성, 경제성, 실용성, 효과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최종 수상작 9건(공무원 5건, 시민 4건)을 선정했다.

공무원 제안 수상작은 △도로 및 회전교차로 진입 유도선 도색(기해주) △전입 지원금 온라인 신청 시스템 구축(전재영) △체육시설 온라인 예약신청 시스템 구축(조종현) △365일 폐기물 규격 마대 구입처 확대(최유진) △공직 근무환경 개선(노병기)이다.

또 '정읍 시내를 경유하는 정항누리길 조성' 제안은 관광객들을 도심으로 유인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관광 소비 촉진과 구도심 상권 활성화를 위한 아이디어로 평가받았다. /정읍=김대환 기자

물 규격 마대 구입처 확대(최유진) △공직 근무환경 개선(노병기)이다. 또 시민 제안 수상작은 △정읍 시내를 경유하는 '정항누리길' 조성(이명하) △다자녀 가정 정읍 장학금 입학 자격 확대(박광석) △조선시대 역사문화 관광지 구축(최형영) △도심 빈 상가를 활용한 작품전시관 설치(오영부)가 최종 선정됐다.

최우수상을 받은 '도로 및 회전교차로 진입 유도선 도색' 제안은 2차선 회전교차로 내 유도선을 표시해 교차로 진입 시 접촉사고 예방에 기여하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평가받았다.

또 '정읍 시내를 경유하는 정항누리길 조성' 제안은 관광객들을 도심으로 유인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관광 소비 촉진과 구도심 상권 활성화를 위한 아이디어로 평가받았다. /정읍=김대환 기자

고창군보건소, 일본뇌염 주의 당부

'일본뇌염 예방수칙' 준수

고창군보건소가 전국에 일본뇌염 주의보가 발령됨에 따라 일본뇌염 예방수칙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일본뇌염 매개모기인 작은빨간집모기는 암갈색의 소형모기로, 논이나 동물축사, 웅덩이 등에 서식한다. 주로 야간에 흡혈 활동을 하는데 7~9월에 매개모기 밀도가 높아지며 10월 말까지 관찰된다.

일본뇌염 바이러스를 가진 매개모기에 물린 경우 250명 중 1명 정도 임상 증상이 나타난다. 대부분 발열과 두통의 가벼운 증상을 보이지만 드물게 뇌염으로 진행돼 고열, 발작, 경부

경직, 경련, 마비 등의 증상이 나타나며 특히 치명적인 급성 뇌염으로 진행될 경우 약 30%는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다.

현재 2009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아동은 국가예방접종 지원대상으로, 무료 일본뇌염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논 또는 돼지 축사 인근 등 모기 출현이 많은 위험지역에 거주하는 사람과 일본뇌염 유행국가로 여행 계획이 있는 사람 중 과거 일본뇌염 예방접종 경험이 없는 성인 등 고위험군에 대해서도 예방접종이 권장된다.

유병수 보건소장은 "일본뇌염 주의보가 발령됨에 따라 매개모기에 물리

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예방수칙의 숙지와 준수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표준예방접종 일정에 맞춰 접종을 하고 매개모기의 활동이 시작될 만큼 앞으로 모기가 활동하는 기간에 지속적으로 예방수칙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모기매개 감염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7가지 행동수칙은 △집 주변 고인 물 없애기 △집은 향수나 화장품 사용 자제 △야외 활동할 시, 밝은색의 긴 옷 착용 △모기퇴치제 올바르게 사용 △과도한 음주 자제 △야외활동 후, 반드시 샤워하고 땀 제거 △가정 내 모기장 사용, 방충망 점검하기 등이 다. /고창=김영진 기자

정읍시, 벼 드론 직파재배 신농법 도입 추진

정읍시는 탄소중립 시대를 맞아 디지털 농업 보급 일환으로 농업용 드론을 활용한 드론 직파 벼 재배단지 조성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디지털 농업기술 드론 직파 벼 재배단지 조성 시범사업'은 논에 물을 얹게 된 상태에서 씨를 띄운 벼씨를 드론을 이용해 파종하고 병해충 방제와 제초제 살포 시비 등 전반적인 재배 과정에 드론을 활용하는 신기술 농법이다. 농작업의 노동력과 생산비 절감을

위해 정읍시 농업기술센터와 농촌진흥청 전북농업기술원이 공동으로 기술 지원한다.

드론 직파재배는 기계 이앙재배 대비 생산비가 10a(300평)당 약 12만원이 절감되며 노동력은 이앙재배 대비 88%가 절감되는 효과가 있다.

관련해 농업기술센터는 27일 드론 직파재배 기술 보급을 위해 태인면 태서리 일원에서 드론 직파 연시회를 열었다.

이날 연시회에는 농업기술센터 관계



자와 드론 직파에 관심 있는 농업인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연시회에서는 벼 직파재배 기술의 안정적인 정착과 확산을 위해 담당된 논에 벼씨를 드론으로 살포하는 과정 연시를 선보였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지역자활센터, 청년 애견 사업 본격 운영

정읍시가 지역 내 저소득층에게 다양한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신규창업을 지원하는 등 자활 지원사업에 힘쓰고 있다.

시와 정읍지역자활센터는 근로취약계층의 일자리 제공과 기술 습득을 통한 취업 발판 마련을 위해 전문 경영 컨설팅을 통한 자활사업 아이템 개발을 지속해 왔다.

특히 최근에는 급성정하고 있는 반려동물(펫) 사업을 통한 청년의 일자리 확충과 자립을 도모하기 위해 펫유튜파아 애견 셀프북을 개소했다.

시는 이 사업에 참여할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의 자활참여자 7명을 모집해 기술 습득과 운영노하우 등의 교육을

마치고 5월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청년 자립도전사업단은 애견 셀프북육 사업과 OEM 방식의 애견 간식 제조사업을 추진해 수익 창출을 꾀할 예정이다.

특히, 다음 달부터는 정읍시 자활기금 지원을 통해 애견 미용사업으로 영역을 넓히고 반려견과 그 가족을 위한 애견 호텔 및 놀이터 등도 갖춰 나갈 계획이다.

시는 이번 자활사업을 통해 근로 능력이 있지만, 구직이 어려운 저소득 청년들이 경쟁력을 갖춘 사회구성원으로 거듭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읍=김대환 기자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뜨거워지고 있는 곳 '북극'

우리집을 지켜주세요

전문가에 따르면 자동차와 공장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증가로 인한 지구 온난화로 빙하들은 점점 녹고 있으며, 이는 지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해양 얼음의 손실은 지구가 태양 광선을 효율적으로 반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지구 온도의 상승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전주매일 지구온난화 캠페인